

배운 것이다. 점점 그들은 이 법리가 단지 사람에게 잘하라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는 한 권의 수련하는 책이며, 한 권의 불법(佛法)·천법(天法)·우주대법(宇宙大法)이라는 것을 보아냈던바 그들이 점차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박수) 그러므로 어떤 생각도 품지 않고 수련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더욱 좋다. 부처의 세계에 가려고 온종일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도 집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며 수련만 하면 일체는 모두 펼쳐질 수 있다. 펼쳐냈을 때에는 오히려 아, 이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여긴다. 경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곧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사람은 바로 사람의 경지라, 자신의 경지보다 높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모두 이런 마음이다. 수련인이 그 경지에 있을 때 보았어도 이상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느낀다.

제자: 광저우(廣州) 제자들이 사부님을 아주 그리워하고 사부님을 아주 뵙고 싶어 합니다.

사부: 광저우 수련생들에게 감사한다. 현재는 말하기 곤란하다. (웃음) 잠시 아직은 안 되기 때문이다.

제자: 난징(南京) 룬루(倫路) 연공장의 많은 대법제자

와 난징의 모든 대법제자들이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사부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아울러 송고한 경의를 올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제자: 베이징(北京), 난저우(蘭州), 하얼빈(哈爾濱), 치치하얼(齊齊哈爾), 내이명구(內蒙), 광저우(廣州), 상하이(上海), 우한(武漢)의 전체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제자: 강희대제(康熙大帝)의 일생 동안의 덕정(德政)은 후세의 군왕(君王)에게 본보기를 수립한 것이지요?

사부: 강희대제의 일생은 비교적 위대하며, 사람들은 강건성세(康乾盛勢)를 역사적으로 전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강희(康熙)는 위대한 황제다.

제자: 제자가 사부님을 아주 상심하게 하는 문제를 여쭙었습니다.

사부: 무슨 상심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아마 나의 사상은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당신들과 다르다. 당신들이 본 것은 표면형식이며 내가

본 것은 진실한 체현이다.

제자: 꿈속에서 나타난 색마(色魔)가 저의 남편이었는데, 역시 마(魔)가 교란하는 것입니까?

사부: 당신의 남편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당신의 남편이 아니므로 틀림없이 연화된 것이다. 주의해야 한다.

제자: 저의 여동생은 한의과대학의 학생인데 다음 학기에 필수과목에 기공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땅히 이 과목을 공부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부: 한의과대학의 학생이라, 그래, 현재 중국의 의과대학도 기공(氣功)의 중의(中醫)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또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정문기공(正門氣功)을 배우는 것은 아주 적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여 보급할 때 비교적 좋은 기공은 그런 몇 종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에 점차적으로 가짜기공이 나타났다. 먼저 나타난 비교적 좀 좋은 공법은 이 태극권(太極拳)이다. 현재 또 일부 사람들은 태극권을 형편없이 고쳐버렸는데, 고친 것은 틀림없이 해로울 것이다. 그런 후에 역근경(易筋經)이 나타났다. 태극은 도가(道家)의

것이고 역근경은 불가(佛家)의 것으로서, 역근경은 과거 소림사(少林寺)의 화상(和尚)들이 내수(內修)하던 것이었다. 잇따라 또 민간의 수련방식-오금희(五禽戲)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류에게 비교적 좋은 점이 있었다. 그 밖에 또 있는데,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 현재는 모두 일부 난잡한 부체공(附體功)들로서, 만약 학교에 가져가 배우게 한다면 학생들을 해칠 수 있다.

제자: 수련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가늠해 보면 사부님께서 저를 진수(眞修) 제자로 승인하지 않을까 봐 수시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항상 제가 그런대로 괜찮다고 여기며 최근에는 저에게 보도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자격이 없음을 깊이 알고 있으므로 대법의 형상을 손상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사부: 이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사실 보도원도 별로 과다한 일이 없으며 또 무슨 관직이 아니다. 바로 매일 연공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연공하고 법공부하는 것을 조직하는 것으로 과도한 일이 없다.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이 잘 닦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 이 자체는 아주 좋은데, 이는 자신이 자신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점과 착오를 보았으면 두려워하지

그리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이 창작하고자 하는 사상 속에 온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만약 한 수련인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물론 우리는 모두 그러서는 안 된다. 수련인으로서 속인사회 속에서 당신은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되어 수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것들은 속인의 도덕에까지도 부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업(業)을 짓는 것이며 나쁜 일을 하는 것인데, 당신은 또 그런 것을 남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그려낸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럼 당신은 그리도록 하라.

모든 쪽지에 다 대답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만 대답하겠다. 여러분 감사하다! (오랫동안 박수)

어떠한 어렵고 힘든 환경 하에서도 여러분은 모두 마음을 온건히 가져야 한다. 하나의 부동(不動)이 만(萬)가지 움직임을 제약하는 것이다! (열렬한 박수)

업이 있고 때 사람마다 모두 사회의 일원인바,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아주 잘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방금 전에도 한 기자와 말했다. 법(法)을 배운 후 집착이 없으면 어떻게 잘 그릴 수 있는가? 속인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갖은 방법을 다해 머리를 짜내며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창작하여 그려냈어도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수련자로서 또한 그림 그리는 것이 자신의 전업인 바로 이런 직업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자신의 일을 잘해야 한다. 그림 수련 중에서 당신의 사상경지 역시 당신의 수련에 따라 승화되는데, 속인보다 높은 사상경지로 무엇을 구상할 때 당신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사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신이 그리고자 하는 일체, 표현하고자 하는 수법(手法), 당신의 예술적 성취는 반드시 속인보다 높다. 이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 역시 잘 조절할 수 있다. 내가 매일 얼마만큼 법을 배우고 얼마만큼 연공한 후에 그 나머지 시간에 작업을 하면 된다. 이는 영향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당신은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떤 때 영감(靈感)을 말한다. 영감이 오자 그는 일종의 격정(激情)으로 그리려고 한다. 무엇을

말라.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면 되는데, 만약 집착과 착오가 없다면 수련할 필요가 없다. 수련과정 중에는 모두 속인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바 이 점은 확실하다.

제자: 제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관(關)임을 알고 되도록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일에 부딪히면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부: 그렇다면 기뻐하라. 상관이 없다. 기쁨은 자신이 아주 어렵다고 여기는 관(關)을 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다. 사실 당신이 기뻐하는 마음은 당신 경지의 제고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거되므로, 당신은 애써 그것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쩔 줄 모르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은 모두 이지(理智)가 있고 지식(知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견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관(關) 그것은 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

제자: (1) 각자(覺者)는 층차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사부: 물론 있다. 바로 여래도 모두 한 층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법왕(法王)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며, 수련인은 그들을 통칭하여 여래(如來)라고 부른

다. 또한 대법왕(大法王)이 있으며 더욱 높은 대법왕이 있다.

제자: (2) 만약 있다면, 비교적 낮은 각자(覺者)의 생명은 비교적 높은 각자(覺者)에 의해 배치되는 것입니까?

사부: 이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 사람의 사상으로 신(神)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불경(不敬)이다. 일단 여래(如來)로 수련 성취했을 때 그의 능력범위 이내의 일체는 모두 자신의 뜻 대로이며, 무소불능(無所不能)이다.

제자: 저는 초기의 수련생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으나, 자신의 근기(根基)가 부족하여 수련이 결속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원만(圓滿)에 이를 수 없다면 우리는 사부님을 따라 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갈 수 있습니까……?

사부: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면, 그럼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당신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원만할 수 없다면 그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은 모순된다. (웃음)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정진(精進)만 하라. 당신도 당신이 어떤 근기(根基)인지 모르

나하면 나도 여러분에게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하여 수련 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부부사이에 당신들이 수련한다고 해서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말아야 하는바, 우리는 속인 여기에서 수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하여 수련하라. 만약 부부사이가 아니라면, 그럼 한 수련생을 놓고 말할 때 이는 아주 문제가 된다.

제자: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마음속으로 늘 일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법 공부 시간을 점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생각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제가法輪功(파룬궁)을 배운 후 더 나아가려하지 않고 자신의 원래 목표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땅히 속인사회에 부합하여 그 자연스러움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그리고 싶었던 것들을 그려야 하는지요?

사부: 이 속에서 나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당신에게 말하겠다. 하나는, 당신은 당신의 직업과 법 공부의 관계를 잘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당신이 잘 조절한다면 당신의 그림 그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창작(創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매 사람마다 모두 직

해야 한다고 알려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나는 어떤 수련생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데, 이혼이라, 어떻게 설득해도 안 되며, 살아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면 이혼해야지. 상대방이 보기에 정말이라면 소란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수련생이 마음속으로 정말로 내려놓고 다투지도 않으면, 상대방은 도리어 이혼하려 하지 않으며, 반대로 당신이 연공하고 싶으면 연공하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러한 것은 아니다. 우리 일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나는 또 당신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수련인의 표준으로 하며 우리 자신이 잘 하고 사태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라고 알려 줄 수밖에 없다.

제자: 제가 우한(武漢)에서 연공할 때, 우리 연공장의 보도원이 말하기를, 저의 언니는 노수련생이지만 그녀는 줄곧 색관(色關)을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정한 수련인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는 저 개인의 인식인데, 이런 인식이 맞습니까?

사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만약 부부사이라면 당신은 또 이렇게 보아서 안 된다. 왜

면서 어찌 근기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원만(圓滿)이다! (박수)

제자: 지구를 한 개 분자처럼 한 입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구 이 분자로 구성된 것은 사람 이 한 층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층차가 높을수록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이 더욱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사부: 내가 이 우주 중의 일체를 모두 말해낸다면, 그것은 또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세할수록 더욱 미시적이고 층차가 더욱 높다고 당신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지구는 가장 낮은 층차에 있다고 당신에게 또 알려주었다. 이 가장 낮은 층차는 큰 입자와 작은 입자의 중간에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내가 또한 당신에게 알려주었던 바와 같이 그것은 큰 입자보다도 낮으며 작은 입자보다도 낮다. 그것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낮다. 더욱 큰 그것도 우리는 말했으며, 역시 사람보다 높은 것이다.

제자: 저는 녹음기가 없습니다. 연공(煉功)할 때法輪大法(파룬파파)의 음악을 틀어야 하는데, 동공(動功)을 할 때 숫자를 세는 데 의거하여 자세를 바꾸어도 됩니까?

사부: 괜찮다. 우리들은 그 당시, 초기에 연공할 때, 내가 수련생들을 가르칠 적에 음악이 없어서 횃수를 세어서 했다. 수련은 필경 초상적(超常的)인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동(自動)적인 기제(機制)가 있기 때문이다. 기제(機制)가 아주 강할 때면, 이 손의 동작은 아홉 번을 다 했을 때 두 손이 스스로 아랫배에 가서 겹쳐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공할 때 기(機)에 따라서 하라고 했다. 기제가 일단 형성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운전(運轉)할 것이며, 기제로 하여금 신체를 이끌어 연공하게 한다. 틀림없이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수련생에게 음악을 들으면서 연공하도록 한 목적은, 초보자들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난잡한 사상이 교란하지 못하는 데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음악을 듣는 자체가 바로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일념(一念)으로써 만념(萬念)을 대체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을 듣는 자체 역시 일념(一念)이지만, 나는 이 음악 속에도 법(法)과 공(功)의 내포를 가했고, 그로 하여금 수련의 보조 작용을 일으키게 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연공하면서 음악을 듣는 목적이다.

만약 음악이 없는 상황 하에서 연공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똑같은 것으로서 영향이 없다.

니면 제자가 사람의 마음으로 이 일체를 대해서인지요?

사부: 아니다. 다 아니다. 다 아니다……. 이 생각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박수)

제자: 남편이 이혼을 제기했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德(德)을 잃는 것인가요?

사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당신은 德(德)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신이 파악해야 한다. 어떠한 데라도 자신은 모두 자신을 연공인(煉功人),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이혼은 아무튼 좋은 일이 아니지만, 흔히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면 일 처리가 아주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도 다 있을 수 있으니, 어떠한 마음도 먹지 말라. 어떠한지 우리 자신은 모두 잘해야 한다.

제자: 제자는 속인의 학습과 생활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혼이 부득이하다면 해도 되는지요? 저는 대량의 법 공부를 해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정(情)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련인의 표준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사부: 나는 다만 당신에게 수련하는 사람의 표준에 따라

님께서 명확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마(達摩)’는 영문에서 불교의 교의를 뜻합니다. 사부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적이 있듯이, 앞뒤 두 개의法輪(파룬)을 모두 마땅히 한어(漢語) 병음(拼音)에 따라法輪(파룬)이라고 직역해야 합니까?

사부: 그렇다. 직역하는 것이 비교적 좋다. 왜냐하면 일부 명사들은 직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는 확실히法輪(파룬), 그의 진실한 함의(涵義)를 반영해 내기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번역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달마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바, 내포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제자: (1) 월초에 세계일보(世界日報)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인도(引渡)……”를 말했는데, 제자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항상 혼자서 사부님의 법상(法像) 앞에 서면 눈물이 줄줄 흘렀으며, 귀국하여 사부님 대신 수난(受難)을 겪어야겠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사부: 여러분의 마음인데, 이것을 나는 모두 볼 수 있다.

제자: (2) 사부님께 여쭙건대, 이는 사부님께서 너무나도 많고 많은 것을 하시어 제자가 비로소 이런 것인지, 아

제자: 연공(煉功)으로써 잠을 대체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또 다른 극단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수련과정 중에 여전히 이 신체로 수련해야 하는데, 이 신체가 없다면 이 일체 또한 수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바 이 신체의 건강상태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잠을 자야 한다. 일이 바빠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의 일을 위해서나 혹은 일이 너무 바빠서 며칠 동안 잠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어찌다 있는 일로서 그것은 다른 일이다. 연공을 통해 그것은 곧바로 회복된다. 내가 장기간 이렇게 연공하고 잠을 자지 않고서 연공으로 잠을 대체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안 된다. 대법은 이렇게 수련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렇게 연마(煉)하는가. 왜냐하면 당신 수련의 첫째가心性(썬썬) 제고이어야만 당신을 진정으로 제고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心性(썬썬)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공을 연마한다 해도 당신은 제고될 수 없다. 인위적인 것이나 이 연공의 강행으로 제고되는 것이 아니다.心性(썬썬)이 제고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연마해도 그것은 제고되지 않는다.

제자: 제지는 주식투자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그것의 실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회사에서 주식을 복리의 한 항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배급하는데 이것은 불의(不義)의 재물입니까? 주식은 회사가 자금을 모아 발전하는 일종의 수단이 아닙니까?

사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사람이 바르다고 여기는 그것이 결코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니다. 특히 인류도덕이 좋지 못할 때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그것은 틀림없이 나쁜 것일 수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동에 의한 소득이거나, 자신이 머리를 써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당신이 장사를 아주 크게 하거나 하는, 이런 재주가 당신에게 있다면 이것은 모두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서, 얼마를 벌든지 모두 관계가 없다. 항상 투기의 방법을 쓴다면 나는 별로 좋지 못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 돈과 재물을 얻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잃었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주식은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것으로서 사람 마음도 따라서 움직이는데, 수련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빌딩에서

제자: 저는 베이징(北京) 하이톈구(海澱區) 대법제자들을 대표하여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수련 중에서 자신의 집착심을 파내어 제거할수록, 속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집착과 이런 집착 중에 포함된 추악함을 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사부님께 여쭙건대, 마땅히 어떠한 심태로 대해야 합니까?

사부: 이것은 정상이다. 한 기간의 수련이 지나고 나면, 모두 이러한 체험이 있다. 이런 속인사회에서 형성된 것들은, 속인사회의 때 사람마다 있지만 속인은 보아내지 못한다. 당신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수련 중에서 속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배척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제자: “불가(佛家)의法輪(파륜), 도가(道家)의 음양(陰陽), 시방세계의 일체가法輪(파륜) 속에 반영되지 않음이 없다.”함을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은 불가의法輪(파륜)을 ‘달마륜(達嘛輪)’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달마륜’은 대법에서 말한法輪(파륜)과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사부

오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연공을 할 때 여러분이 모두 편하게 평소에 입던 옷차림으로 보통사람처럼, 되도록 주위 사람과 같게 한다면 아마 연공에 참가하고 법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자: 저의 눈앞에는 투명한 풍선 막 같은 것이 빙빙 돌고 있는데, 이미 2년이나 되었습니다. 막 속에서는 아주 많은 검은 점들이 변하고 있는데, 현관(玄關)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사부: 아마 그럴 수도 있다. 매 사람의 구체적인 상태를 나는 모두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당신들의 수련에 대해 좋은 점이 있다.

제자: 저에게는 한 살짜리 혼혈아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제가 24시간 그 애를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볼 때 그 애는 늘 『전법륜(轉法輪)』과 사부님의 법상(法像)에 뽀뽀하려고 합니다. 사부님의 설법 녹음테이프를 그에게 틀어주어 듣게 함으로써 그가 법을 얻도록 도와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부: 물론 된다. 물론 된다. 대법제자의 아이는 바로 속인의 아이와는 다르다.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실 주식투자는 바로 도박이다. 그렇다면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도박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며, 나는 마땅치 않다고 말한다. 물론 나는 속인사회의 속인에게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주식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속인의 일이다. 나는 여기에서 다만 수련하는 사람에게 수련의 이치를 말할 뿐이다. 당신들은 반드시 속인의 상태를 초월해야 하며 언제나 더욱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회사가 복리나 혹은 금료의 일부분으로 나누어 발급한 것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바꾸면 된다.

제자: 수련하는 사람은 가족을 대신하여 업력(業力)을 감당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업력이 없는 아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업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부: 아마도 그 아이는 부모가 관(關)을 넘을 때, 관(關) 넘기를 너무 힘들어 하고, 너무 부족하게 보여, 당신을 대신하여 좀 감당한 것인데, 그 마음에 감사하지는 않고, 왜 아이가 나를 대신하여 괴로워한다고 하는가? (웃음) 단지 한 가지 이치를 말할 뿐이며, 결코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대법제자의 아이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제자: 다섯 살 난 아이가 이미 2년을 수련했습니다. 그는 앞이마에 텔레비전이 있으며 사부님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설법하신다고 말했는데 이는 교란인가요 아니면 바른 상태입니까?

사부: 아이에게는 교란이 아니다. 어쩌면 이 방법을 통하여 아이에게 법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휴식에 절대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제자: 속인사회 속에서 마성(魔性)이 매우 큰 세력이 광범위하게 대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제거하려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법을 가장 잘 원용(圓容)하는 방식입니까?

사부: 어떤 수련생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대법을 끝까지 수련할 것이며 머리가 잘려나가도 나의 몸은 여전히 이곳에서 가부좌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 사람의 사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단지 표면만 다스릴 수 있을 뿐 근본을 다스릴 수는 없다. 수련 중에서 나는 이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했다. 만약 다만 형식적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한다

敬)한 일을 몇 차례 했습니다. 제자는 매우 괴롭습니다. 그는 대법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부: 우리 여기에 자리한 사람 중에도 있다. 이전에는 대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역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지만, 후에 그는 법을 배웠다. 자신에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일종의 교란인지 살펴보라.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데 교란이든 또 수련 중에 나타난 상태이든 수련생은 모두 心性(心性)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 일을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 사실 사람은 무엇을 했든지 모두 갚아야 하는바 대법을 파괴한 일은 그 죄가 아주 크다.

제자: 때로는 대법제자로서 연공(煉功)과 법 공부에 대한 몰두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게 하며 심지어 멍하니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최대한도로 속인사회에 부합되어 수련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부: 그렇다면 어떻게 몰두했는가를 봐야 한다. 만약 수련생이 항상 온종일 연공(煉功)과 법 공부만 하면서 집안 일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평소 연공할 때 여러분이 모두 노란색 옷을 입으면, 속인들은 종교행사를 하는 것으로 느껴 감히 들어

이런 일들은 모두 지나가게 될 것이며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최후에 그는 틀림없이, 우리가 자신의 수련 충차를 돌파함으로써 변화가 발생할 것인데, 틀림없이 이리하다!
(박수)

제자: 주관적인 소망과 무사무아(無私無我)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부: 속인의 생각과 수련의 상태를 함께 뒤섞지 말라. 당신이 말한 주관적인 소망은 틀림없이 속인의 집착일 것이다. 무사무아(無私無我)는 내가 당신들에게 요구한 수련 중에서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서 당신들에게 인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수련 중에서 노력하여 이 한 점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럼 또한 수련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억지로 하면 안 되는바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렇게 무사무아(無私無我)하게 해냈다고 하지만 어떻게 무사무아(無私無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체는 모두 수련에 따라 제고되는 중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해낼 수 있다.

제자: 저의 남편은 대법(大法) 책을 찢고 대법(大法)에 불경(不敬)한 수많은 말들을 했으며 또한 대법에 불경(不

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아니다. 물론 또 어떤 수련생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지를 막론하고 어떻게 교란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다. 물론 사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자: 온종일 홍법(洪法)을 생각하는 것도 마(魔)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부: 홍법(洪法)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로서 잘못이 없다. 그러나 또 수련에 영향을 주지는 말라. 홍법의 일은 대법제자를 놓고 말하면, 확실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제자: 서양사회에서 사람들은 비교적 치아의 미관을 중시하는데, 제자로서 우리는 치아 미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부: 하고 싶으면 하라. 이것을 무슨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치장하고 싶으면 치장하라. 이는 모두 속인의 일이다.

제자: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가 법을 전하고 사람을 제도할 때 우주의 중생은 이미 법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정법(正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부: 그들은 단지 여래(如來)이기 때문에 그는 우주의 법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법만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뿐이다.

제자: 사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매 한 사람마다 모두 원만(圓滿)의 고협, 이 한 관(關)을 이미 겪었습니까? 관을 넘지 못한 사람은 이후에 또 기회가 있습니까?

사부: 이것을 나는 모두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또 있다고 알려주면 당신은 기다리고 준비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준비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에게 모두 원만할 수 있고 얼마나 원만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것도 모두 말할 수 없다.

제자: 저는 미국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는데, 국내를 말하자면, 특히 빈곤한 학자에 대해서 늘 일종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 연민(憐憫)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이런 심리에 대해 힘겨워 했는데, 마땅히 도와야 할지 돕지 말아야 할지 몰라 마음속에서 격렬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속인 중의 정(情)인지 아니면 승화된 자비(慈悲)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부: 그렇다. 그럼 우리의 말투가 반드시 남자 같아야 하는가? 여인은 마땅히 여인다워야 하며 무슨 일을 해도 여인다워야 하는바, 나는 단지 당신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뿐이다. 오해를 일으킨다는 데 대해서 말한다면, 정상적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 사람과 사물을 대함에 과분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바, 대범하면 절대 문제가 없다.

제자: 저의 남편은 미국인인데 제가 대법을 얻은 후 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읽는 과정에, 저는法輪(파룬)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갑자기 그는 어느 날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요가가 그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거의 매일 밤마다 이것을 하자고 합니다…….

사부: 일부 일들을 냉정하게 보아야 하며, 우선 자신을 보아야 하고, 자신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마(魔)의 교란이다. 그러나 교란이든 또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든, 자기의 남편에게 그 이치를 말할 수 있는바, 사람에게는 이지(理智)가 있다. 우리는 모두心性(썬썬)을 지켜야 하는데, 남들은 틀릴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틀려서는 안 된다. 만약 자신이心性(썬썬)을 지킬 수 있다면 이 한동안 시간이 지나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제자: 중국 내에서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저의 가족은, 외부의 교란이 있어 연공장(煉功點)에서 연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수련합니다. 수련하려는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부님께 여쭙는데, 이는 그들이 수련 성취하여 원만을 이룸에 영향이 있습니까?

사부: 『전법륜(轉法輪)』에서 이 말을 나는 이미 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모두 똑같다. 그러나 여러분은 서로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대법은 수련생으로 하여금 원만(圓滿)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으며 수련생도 대법(大法)을 원용(圓容)해야 한다.

제자: 제자가 사부님께서 친히 읊으시는 『홍음(洪吟)』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비디오테이프에서…….

사부: 장래에 기회가 있다면 가능하다.

제자: 당신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잘 대해줘야 하며 여성 제자는 부드러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흔히 이성(異性)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성(異性)에 대해 여전히 속인의 그러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사부: 고향의 사람에 대해 일종 동포의 감정이 있는 이것은 역시 무슨 잘못이 없다. 누가 빈곤한 것을 보고 도와주는 것도 잘못이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수련하는 사람은 마땅히 더욱 많은 정력을 수련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의 인연을 볼 수가 없느냐 당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 만약 그가 장래에 대법을 파괴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장래에 대법을 배울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정말로 공덕(功德)이 무량한 것이다. 장래에 그가 당신에게 선한 보답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도 모두 수련인의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절을 지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말한다면, 석가모니마저도 유위법(有爲法)은 물거품 같은 환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을 수련하지 않으면 영원히 올라갈 수 없으며, 당신이 온 도시에 건립한 것이 모두 절이라고 해도 당신은 역시 부처(佛)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부처가 당신이 내게 절을 많이 지어준 것을 보고 당신에게 올라오라고 뒷거래를 하겠는가. 속인의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그럴 수 있겠는가? 아니다. 누구라도 수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한다면 아마 당신이 지은 절에는 부처가 없고 부처도 가지

않으므로 모두 그런 여우, 족제비, 귀신, 뱀들에게 점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악한 자를 도와 나쁜 일을 한 것으로 당신은 오히려 나쁜 짓을 했다. 아무튼 바로 이러한 관계로서 사람은 투철하게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한다.

제자: 『법륜대법의해(法輪大法義解)』 72쪽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여전히 이어서 수련할 수 있다면, 자신이 계속해서 수련할 수 있고, 계속해서 수련하고자 한다면 친지, 친우의 업력을 당신이 가져다 없애버림으로써 德(덕)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德(덕)은 사람의 心性(심성) 그리고 마음의 용량과 상보 상성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德(덕)은 그 한 경지에 이르면 가득 차서 더는 담을 수 없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고생을 더 겪는다면 사람은 아마 용량이 모자라 나쁘게 변해 떨어져 내려가고 헛되게 수련할 수 있다.” 사부님께 여쭙건대, 마지막 한 마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그것은 법리(法理)상에서 말한 것으로서, 정말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수련하여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수련하는 사람이 관(關)이 너무

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극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한 속인이 다른 한 사람을 비평할 때 그가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나치기만 하면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며 또한 단번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 속인이 문제를 적절치 못하게 처리한 것이다. 수련도 마찬가지로 수련이 그 한 걸음에 이르렀을 때, 과도한 난(難)을 당신에게 가해준다면 당신은 정말로 아주 위험하다. 관(關)을 넘을 때에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인데, 당신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당신에게 넘으라고 준 관(關)인데 당신은 수련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수련 원만에 이르렀으면 역시 곧바로 개오(開悟)하게 되는데, 이는 확실하다. 만약 당신이 거기까지 수련하여 이미 가득 찼는데도 여전히 당신으로 하여금 개오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이미 극한(極限)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개오할 수 없다면, 그럼 단번에 절망(絶望)으로 변한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단번에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바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바로 이런 뜻이다.

제자: 푸순(撫順)과 시안(西安)의 수련생들이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